

# 대형마트 수입닭고기 판매 감시시스템 구축돼야...

국내산 닭고기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생산자단체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계육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양계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수입닭고기 판매물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판매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등 큰 효과를 이끌어냈다.

##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올해 양계관련 생산자단체들의 수입닭고기에 대한 투쟁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한국계육협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는 이마트의 주요 매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입닭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대규모의 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생산자단체들의 강력한 목소리에 이마트는 결국 더 이상의 수입닭고기 판매는 없을 것이며 양계산업의 발전에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마트에 이어 다음 화살은 홈플러스로 향했다.



김수형 기자  
축산신문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와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7월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수입닭고기 판매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수입닭고기 판매 중단과 과도한 할인판매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농가들이 대거 참여한 집회로 이어졌다.

전국의 육계 및 토종닭 사육농가와 닭고기 산업 관련 종사자 300여명은 지난 7월 22일 홈플러스 강동점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서 “육계농가를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끊임없는 목소리에 홈플러스측도 “계약물량 소진 후 더 이상의 수입닭고기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할인판매를 실시할 경우 관련단체들과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며 일단락됐다.

롯데마트 역시 이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다.

생산자단체들은 지난 8월 5일 롯데마트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며, 롯데마트 역시 이마트와 하나로마트와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 대형마트들 “수입닭고기 부득이한 선택”

수입닭고기 판매와 관련해 대형마트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금씩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마트 전체 수익에서 수입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입닭고기를 찾는 경우가 많아 조금씩 취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들이 보는 시각은 달랐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수입닭고기를 판매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길들여지는 것”이라며 수입닭고기 판매의 더 큰 확산을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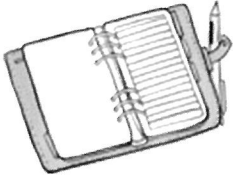
### 생산자단체들 “앞으로가 더 중요”

국내 주요 대형마트에서 수입닭고기 판매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생산자단체들의 그 동안의 투쟁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입닭고기 판매 중단이 대형마트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일회성인 다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입닭고기 판매 철회를 선언했던 대형마트에서 추이를 보고 재판매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는 실정이다.



## 기자수첩

그렇다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집회를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약속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지금껏 항의 방문과 집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수입닭고기 판매 중단 약속을 받았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계열화업체에서도 노력 필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형마트 측에서는 수입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 양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소비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닭고기의 부분육 시장에서 국내산 닭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열사들도 부분육 시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닭 위주의 소비가 주를 이뤄 부분육 시장에서 수입육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들어 도계장에 부분육 해체를 위한 라인을 증설

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분육 시장에서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산 닭고기의 자급률이 7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반복으로 소모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계열화 업체 및 생산자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걸맞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야 하며, 소비자들도 최대한 국내산을 애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또 협회나 자조금관리위원회 등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비록 이번 집회는 관련된 모든 단체가 서로 상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업계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에서도 법적 장치의 마련으로 닭고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